

■ 2026년도 시각예술 창작산실 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6년도 시각예술 창작산실 지원심의

○ 회의일시 및 장소

- (1차) 2025년 12월 15일(월), 13:30 ~ 16:00/ 예술가의 집 영상회의실

- (2차) 2025년 12월 22일(월)~24일(수), 09:00 ~ 19:00/ 나주본관 중회의실

○ 심의위원명(가나다순) : 남인숙, 변종필, 윤동희, 이윤희, 이준, 이현

2026년도 문예진흥기금 정시공모 <시각예술 창작산실> 사업은 예술의 동시대성과 수월성, 창의성을 지향하는 시각예술 분야 작가, 기획자, 비평가의 다양한 창작 및 매개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한국 현대미술계의 발전과 예술적 성취를 도모합니다. 시각예술 분야의 개인 및 단체가 추진하는 프로젝트 구현 및 활동 수행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하며, 단년(1년, 2026년)과 다년(3년, 2026~2028년) 사업으로 구분하여 매년 성과를 평가·모니터링 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심의 전문성 및 심의 기준의 일관성 확보를 위하여 운영하는 전담심의제 적용 사업으로서 사업 선정부터 사후 모니터링까지 일관된 판단 체계를 유지하고, 이를 통해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지원 사업의 성과를 실제 현장에 환류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1차 서류 심의와 2차 인터뷰/PT 심의를 단계별로 시행하였습니다. 올해 신청 접수한 총 593건 중 <시각예술 창작산실> 부문의 심의 대상은 501건(단년 444건, 다년 57건)이었으며, 그중 1차 서류심의와 2차 인터뷰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16건(단년 12건, 다년 4건)이 선정되었습니다. 심사에 참여한 심의위원은 심의 전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심의 절차와 방법, 공공 기금 사업의 취지와 중대성을 충분히 숙지했으며, 공정하고 일관된 기준으로 심의를 수행하려 노력했습니다.

1차 심의는 6인의 심의위원이 지원신청서를 전수 검토하고, 각 결과의 총합을 도출하여 상위순으로 2차 심의 대상을 선정하였습니다. 심의 기준은 공지된 대로 신청주체의 사업 수행역량(30%),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50%), 사업계획의 공공성(20%)을 각 평가항목별 세부지표에 따라 엄격히 적용, 본 사업의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프로젝트를 선발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2차 심의는 1.5배수 이내에서 인터뷰 대상을 선별하고, 심의위원 전원이 지원신청서를 재검토해 질문안을 사전에 준비했습니다. 심의의 형평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별로 사전 질문지를 작성하였으며, 정해진 인터뷰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하여 공통 질의 사항을 중심으로 전담 질의 위원을 정하고 다른 위원들이 보완 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신청인의 사업 계획 발표와 심층 인터뷰를 통해 기획의 구체성과 비전, 실행 가능성을 재차 확인했으며, 심의위원 6인의 치열한 논의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을 결정했습니다.

2026년 <시각예술 창작산실> 사업의 전반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독립큐레이터 주도의

기획전보다 작가의 프로젝트에 기획자가 결합하는 형태의 사업이 증가한 점이 눈에 띕니다. 또한 작가의 단년 사업의 경우 신작 제작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음에도 여전히 개인전 개최를 주요 목표로 설정한 기획이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더불어 최근 미술계 전반에서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디아스포라 담론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며, 이주라는 주제에 다양한 형식으로 접근하려는 시도가 증가한 점도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수하게 평가된 사업들은 단년과 다년을 불문하고 기획의 정밀성과 실행 가능성, 성과 관리 체계를 설득력 있게 제시한 경우였습니다. 한국 미술계에서 본 사업이 갖는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공공 기금 사업으로서 책임감을 명확히 제시한 사업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공공성 측면에서는 아카이브의 공개 여부, 즉 대중이 접근 가능한 플랫폼과 환류 구조를 제시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수도권 기반 사업의 경우에도 실제 수행 공간이 지역에 있거나, 지역 미술 생태계와의 연계가 확인되는 사업은 긍정적으로 논의했습니다. 다년 사업에서는 단순히 기존의 관심사나 활동하던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사업 구조가 확장될 수 있는 계획을 제시한 사업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특히 기획의 참신성뿐 아니라 실제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운영 구조가 현실적으로 설계되었는지를 주의 깊게 살폈습니다.

반면 작가 프로젝트에 기획자가 참여함에도 이론적 보완보다는 행정적 지원에 그치는 경우, 본 사업을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기보다는 기존 활동을 관성적으로 반복하는 데 머무르는 경우는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또한 인공지능(AI)을 소재로 한 기획이 다수 제시된 점은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현상으로서 의미가 있으나, 구체적인 활용 방식과 예술적 참신함을 충분히 설득하지 못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다년 사업을 신청했음에도 중장기 계획의 실효성을 뒷받침하지 못해 단년과의 차별성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사업은 심의 과정에서 한계로 지적되었습니다.

예산 배정에 있어서는 신청자가 제시한 금액을 그대로 수용하기보다 사업의 실제 수행 규모, 인력 구성, 기대 성과 대비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일부 사업은 신청액 대비 조정이 불가피했으나, 일률적으로 삭감하기보다는 각 사업이 현실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수준을 판단 기준으로 삼아 지원 금액을 결정했습니다. 특히 다년 사업의 경우 3년간 지속 가능한 재정 구조와 단계적 성과 축적을 중심으로 살피며 예산을 배분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들이 공공 기금 사업으로서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계획한 내용을 성실하게 수행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단기간의 성과 창출에 그치지 않고, 예술적 담론을 꾸준히 생산하며 동시대 시각예술 생태계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확산해 나가기 바랍니다. 특히 아카이브 구축, 지식과 정보의 공유, 지역과의 연계 등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기를 당부합니다.

심의위원 일동